

무명 출연자의 자기 인식

홍 승수 라파엘

요한 1: 35-42 예수와 첫 번째 제자들

³⁵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곳에 서 있다가 ³⁶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하고 말하였다. ³⁷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³⁸ 예수께서는 뒤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이르니,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하고 말하였다. (라빠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³⁹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네 시쯤이었다. ⁴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⁴¹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⁴²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 너를 게파라 부르겠다.”하고 말씀하셨다. (게파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피세정념을 약속한 일주일의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구 요비 신부님께서 그날 내게, ‘예수의 세례’, ‘니고데모의 고민’, ‘사마리아 여인의 개안開眼’과 함께 요한 1: 35-42 을 묵상 텍스트로 주셨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에 따라 예수를 따라간 제자가 두 명이었다고 성서는 들려준다. 그 중의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확실한데, 다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성서는 우리에게 침묵한다. 나는 안드레아보다 안드레아와 동행했던 그가 누구였으며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더 알고 싶었다. 이 구절의 병행구인 마르코 1:16-20 과 마태오 4: 18-20 을 뒤져봤으나, 거기에도 나머지 한 제자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눈은 감고 감실 앞에 앉아 있었지만, 묵상은 분심과의 싸움이였다. 생뚱 맞게 심리학 실험 하나가 머리에 떠올랐다. - 큰 상자 안에 여러 개의 작은 칸을 만들어 놓고 그 상자 안에 쥐를 한 마리 풀어 넣는다. 한 칸만 제외하고 나머지 칸들은, 칸의 4 면 중 한쪽 면을 터놓아 내부를 쉽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마련해 뒀다. 그러나 하나는 네 면을 모두 천으로 가려서 안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없게 했다. - 실험 대상의 쥐는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바로 그 칸에 제일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막힌 칸의 내부를 보려고 무진 애를 쓰더라는 것이다.

겨우 쥐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지만, 익명의 제자에 대한 궁금증은 도를 더해가기만 했다. 그 제자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예수와 하루 밤을 같이 지내보고,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 했을지 모르지... . 예수의 제자 된다는 사실이 요구하는 포기 사항들을 그가 선뜻 수용하기 힘들었을 게야. 이 정도의 선에서 궁금증과 타협하려 했지만, 텍스트에는 또 하나 이상한 데가 있었다. “**때는 네 시쯤이었다.**”는 언급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주어진 문단에서 이 짝막한 문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영 못마땅했다. 예수가 계신 곳에서 하루를 지내고 났더니 오후 4 시가 됐다는 말인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숙소로 도착한 때가 4 시란 의미인지, 아니면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선 시각이 바로 그 때쯤이었다는 언급인지, 나는 통 종을 잡을 수가 없었다. 하루를 지내고 났다면 아침 시간을 대는 게 순리일 듯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두 제자가 도착한 시간이 오후 4 시라는 말이 맞을 터. 그런데 이 추측이 옳다면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머무시는 곳에 당도하니, 때는 네 시쯤이었다. 그들은 그 날을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로 기록해야 마땅하지 않았겠는가? 나도 희랍어나 히브리어 원전 성서를 직접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네 시라고 시간을 못 박은 특별한 까닭이라도 있는 것일까?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상황 전개에 긴장감을 더하고자 했겠지. 그렇더라도 왜 하필이면 녀 4 자 4 시란 말인가.

이 성서 구절을 내가 그날 처음 만난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적어도 말씀의 전례를 통해 여러 차례 만났었던 구절이 틀림없는데, 오늘따라 두 대목씩이나 걸림돌이 되는 연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감실에 계신 주님께서 혹시 힌트라도 주실까 기대했지만 시간만 속절없이 흘렀다. 묵상은 제자리에서 맴돌다 엉뚱한 곳으로 달아나고는 했다. 지엽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 대신 '첫 번째 제자의 부르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감실 성체 등에 눈길을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내가 익명의 그 제자에게 일어났던 상황에 궁금해 하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다. 내 자신이 바로 그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성서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그 인물은 신앙적으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다. 어느 부자 청년이 그러했다. 하지만 성서는 별 볼일 없는 이들이라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구나. 내가 부자 청년의 태도에서 나 자신의 어정쩡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듯이, 익명의 제자에도 내 모습이 알 듯 모를 듯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엑스트라 인생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과학의 합리성合理性과 인간 이성理性의 이름을 내세워 예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교회가 가르치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세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알기에, 나는 “네, 주님 제가 여기 대령했나이다.”라고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명의 등장인물로 남기를 원한다. 요나의 피에 의존하며, 하늘과 땅의 길항拮抗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그 알량한 세속적 즐거움을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성체 등燈 앞에서 고백하고 있었다.

사정은 두 달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변한 게 없고 세상도 2 개월 전 그대로 남아있다. 하루 밤을 예수와 같이 지낸 안드레아는 ‘분위기’만으로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예수의 호칭이, 하느님의 어린 양에서 선생님께서 그리고 메시아로 바뀌는 것을 보면 안드레아의 상황 인식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식을 행동으로 옮겼다. 안드레아는 형을 예수께 데려가는 기민함까지 보였지만, 익명의 제자는 개안의 현장에서 애써 눈을 감고 소리 없이 사라진 모양이었다. 아, 바로 내 모습이었다.

나는 영세 후 40 년이 넘는 세월을 ‘성聖도 아니고 속俗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안드레아의 힘찬 발길에 선망의 눈길만 보내며 그저 그렇게 살아왔다. 주님께 대한 나의 미지근함이 뜨겁게 바뀔 수 있을까.... 나는,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예수의 질문에 꼬리를 내리고 돌아서기를 반복 했던 것이다.

사목관에서의 두 달 전 묵상을 회상하면서 오늘 참고 문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오후 4 시”의 언급에서 그 날이 **금요일**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이 책 저 책에 적혀 있었다. 하루의 시작을 일몰에 두었던 전통을 생각한다면, 금요일 오후 4 시는 곧 안식일이 시작될 참이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날 더 이상의 이동은 삼간 채 예수와 함께 묵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다른 해석도 있었다. 원문에는 “오후 4 시”가 아니라 “제 10 시”로 되어 있다고 한다. 해뜰 무렵에서 해질 녘까지를 12 시간으로 나누던 당시의 관습을 고려하면 “제 10 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4 시”가 되는 셈이다. 한편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이나 ‘성취’를 뜻하므로, 예수와 함께 머물면서 나눈 대화의 시간, 그 성과 및 의미의 중요성을 시사 하기 위하여, 복음사가가 “제 10 시” 즉 “오후 4 시”를 언급했다는 해석이었다. 나는 후자를 택하고 싶다. 교회 전통에서는 익명의 제자가 제베대오의 아들 요한이라고 믿는단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로 흔히 지칭되는 성 요한이 안드레아와 같이 예수를 따라간 세례자 요한의 제자라는 믿음이다. 요한 복음서에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했다라면, 나도 익명의 제자를 요한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제자의 향방에 그렇게 궁금해 했던 것은 나의 어정쩡한 신앙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도둑이 제 발이 저리다.”고 했던가, 아니면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고 했던가. 예수에 대한 나의 ‘부채의식負債意識’이 이렇게 확인됐지만, 그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날이 내게 영영 오지 않을 듯하다. 부채의 완전 변제를 욕심 낼 처지도 못 되는 줄 나는 물론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제게 허락된 시간 안에 그분께 진 부채의 지극히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도록, 도반님 네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무명의 엑스트라로라도 계속 써 주십시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교수>>

참고 문헌:

1. 국제가톨릭성서공회 편찬, 해설관 공동번역, 성서, (대한성서공회: 서울) (2003)
2.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 주년 기념, 신약성서, (분도출판사: 서울) (1993)
3. 이 영현 역주, 요한 복음서, 한국 천주교회 200 주년 신약성서 4, (분도출판사: 서울) (1997)
4. C.M. 마르티니 지음, 성 염 옮김, 마테오 복음, 성서묵상 1, (성바오로출판사: 서울) (1993)
5. The NEW TESTAMENT of the NEW AMERICAN BIBLE, Saint Joseph Edition, (Catholic Book Publishing Co.: New York)(1970)

포항성모자애원 마리아의 집 가족 캠프를 다녀오며 (2009. 8/15-8/16)

해마다 포항성모 자애원 마리아의 집 식구들과의 만남을 이어온 지 어언 23 년이 되었습니다.

말이 23 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인가....?

어느 هنگ 20 살이 갓 넘은 어여쁜 사회 복지사가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내 나이 이제 만으로 태어난 지 20 년이 되었는데 구로본동(현 구로 2 동) 교우들과의 만남이 23 년이라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긴 세월의 나눔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만남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23 년을 지켜오면서 많은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 자리엔 항상 주님의 도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7 년 서강대에서 있었던 장애인 복지대회에서 우리들은 포항성모자애원생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첫 만남이 이루어졌답니다.

그 때에 우리들은 구 요비신부님을 모시고 본당활동을 아주 활발히 했던 시절이었고, 내 나이 그때에 30 을 갓 넘은 젊은이로서,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신부님은 본당에서 가장 가난한 이웃들을 선택해주시는 주님의 목자이셨고, 항상 포용하여 주시는 구신부님과 함께 빈첸시오회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답니다. 본당 사목위원들도 신부님을 뜻을 따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었는지, 나는 일찍이 알며 기쁘게 살았던 그 시절이 지금도 많이 그립곤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항과의 인연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해인 1988 년에는 포항 성모자애원 마리아의 집 식구들을 서울에 초대하여 구역식구들과 민박을 하면서 한 가족 만찬을 나누었고. 그 다음날에 용인 자연농원을 다녀왔던 기억이 아주 새롭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그 뒤 20 년을 하루처럼 해마다 서울과 포항을 오가며 사랑을 나누었고 이젠 참으로 1 년에 한번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랑에 깊이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해 오시는 신부님들은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 먼 곳 포항까지 가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힘든 민박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등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우리들은 그 오랜 세월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역식구들은 나눔을 통해 주님을 만났다면 기뻐하였고, 나눔의 과정 속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라 우리들은 결코 이 만남을 포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들은 결국에 본당 차원에서의 만남이 어렵게 되었고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문희 주교님이 선정한 20 년 동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우리들에게

사회복지대회 100 주년 때에 100 명의 수상자로 구로본동(현 구로 2 동) 빈첸시오회가 선정되었고

우리들에게 첫 번째 상을 주고 싶어 했던 포항성모 자애원 마리아의 집 식구들에게 왜 그리 미안 했던지.....

그렇지만, 구로본동 신자의 축하도 없이 쓸쓸하게 감사패를 받았던 그 곳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뒤에서 후원해 주셨던 세실리라 자매님과 바오로 회장님이 포항까지 같이 동행해 주셨고, 이미 본당을 떠난 그분들이 본당대표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그 동안 두 번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시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날 새벽 포항으로 달려가면서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던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녀온 23 년 포항과의 만남은 내 인생에 많은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빈첸시오 회원들도 해마다 구로동을 떠났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리운 친구들도 많지만, 나의 젊은 날의 추억은 포항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 대의 젊은 친구들은 수녀원으로, 그리고 SOS 어린이 마을로....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회원들은 결혼을 해서 구로동을 떠나갔습니다.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포항은 우리들의 고향처럼 떠오르곤 합니다. 포항성모 자애원 마리아의 집 식구들은 유독 구로동을 그리워했고 늘 우리들의 만남을 위해 그리고 구로본동 교우들을 위해 1년을 하루처럼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남에게 해 줄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서울 가족들이 있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마리아의 집의 천사들을 마주보며 더욱 희망과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 갈 것입니다.

이젠 우리들의 만남에 대해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힘든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그로 인해 기다림에 대한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 많이 행복합니다. 이제 3 년 전부터 구 신부님이 우리들의 만남을 이루어주셨고 또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성숙한 나눔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그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오늘 저는 깨달았고, 하느님의 시간이 이렇게 영원처럼 아름답고 평화롭게 느껴져 보기도 처음입니다.

포항에서 만났던 고 방 카타리나 언니의 웃는 모습도, 몸이 불편하면서도 열심히 뛰어다녔던 고 이종만 요셉 형제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나도 언젠가 그들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미소 짓게 하곤 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주님의 손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구 신부님과 참 제자 모임 회원들에게 같은 형제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 지금 저는 많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김부형 도미딜라- <<전 구로본동 빈첸시오 회장>>

눈 이오고 꽃이 피고 연녹색 푸름에 가슴 설레는 봄인가 싶더니 어느덧 뜨거운 여름의 문턱을 훌쩍 넘어섰네요.

벌써 언니가 주님 곁으로 가신지 두 해가 지났는데 아마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언니가 떠난 그 해 에는 길을 걸을 때나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문득문득 언니 생각이 나서 종종 눈시울을 적실 때가 많았었어요.

언니를 이대로 보내드리면 다시는 못 만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파서 못 견딜 것 같았지만 소용돌이치듯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살이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언니를 잊고 살 때가 많았네요.

그래서 산 사람은 살게 마련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도 주님께 기도드릴 때면 언제나 언니가 하느님의 따뜻하고 평안한 품 안에서 잘 계시라고 가슴으로 기도했어요.

지금도 “언니” 하고 부르면 언니는 소녀처럼 해맑은 웃음으로 손 흔들며 나타날 것 만 같아,

소리 내어 언니를 불러보지만 혼자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는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리움이 되어 목을 메우네요.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에 마음을 스스로 다독거리 봅니다.

언니가 남기고 간 정의와 진실, 가난한 이, 병든 이,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참 사랑, 그 고귀한 삶을 조금이라도 닮고 싶어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 했었는데;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는지, 혹여 어두운 밤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나? 하며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언젠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결혼도 하지 못한 채 한 평생을 홀로 힘겹게 살면서 몸이 불편해 바깥 출입조차 못하시는 할아버지를 방문했었는데, 문득 언니와 함께 빈 쉼 시오 활동을 했던 지난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일 을 할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에는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거짓 이혼을 하고 가족과 헤어져 힘겹게 사시던 형제님을 방문하고 그분의 집에서 도배와 청소를 해주며 기뻐했던 순간들. 또 정신적으로 아프신 엄마와 살면서 이발조차 제대로 못한 더벅머리 아이의 머리를 서툰 가위질로 다듬어주면서 사랑과 위로를 함께 나누었던 보석 같은 시간들....

까맣게 잊고 살았던 순간순간들이 한 아름 추억으로 모여 가슴을 적시는군요,

그 때 생각에 미소 짓는 제 모습을 보면 그래도 그때가 내 인생의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언니는 먼저 떠났지만 추운 겨울날 솜이불처럼 따스했던 언니의 사랑과 평화의 삶이 고스란히 우리 곁에 남아 삶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활력소가 되어 주님을 향한 발걸음에 날개가 되어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언니, 참 제자 가족들의 소망이던 참 제자 마을 조성이 눈앞에 다가 왔어요.

그 거룩하고 큰 뜻이 하느님 안에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구 신부님과 참 제자 모임 가족들, 특별히 투병 중에서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고 수고하시는 양 토마스 회장님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들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언니에게 영원한 안식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 하겠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벗, 방 선녀 카타리나언니,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 합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 까지 안녕.

2009 년 6 월 28 일 언니가 보고 싶은 날에;

이정화 요안나올림

*** 참 제자 마을 설립 목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겸손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

*** 복음적 실천 목표**

주제 ; 삼위일체 신비와 하느님의 가난

- 자기 비움
- 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방향 및 목적**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 터
- **노인 요양원**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며 응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터
- **환경 생태 공원**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 터
- **관상 수도원** ; 젊고 활기찬 한국교회가 소홀 하기 쉬운 기도와 관상을 위한 기도의 터
- **포항 성모 자애원 마리아의 집** ; 이웃 사랑의 실천과 배움의 터

*** 참 제자 마을 조성 봉헌 안내**

* 순수 기부금; 837-21-0285-795 국민은행 양 명신

* 조건부기부금; 055-21-0724-082 국민은행 양 명신

(년6%금리적용 봉헌금 산정, 20011년12월 상환 예정)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권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 ; 011-9961-3600 , 031-584-9117

팩스; 031-584-9117, e-mail ; thomyang@inteckor.com

< 신립 및 입급 현황 > 2009. 9. 14. 현재

신립인원	신립금	납입인원	입급액
135	691,492,000	977	508,682,000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가톨릭 명동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4억 원 중 회원님들의 협조로 9월1일 현재 총 3억7,100 원을 상환하여 현재 대출 잔액은 2,900만 원 입니다. 2010년에 진입로 공사 및 피정의 집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주위에 권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매일 12시 정오에 참 제자 회원 모두가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와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한 마음으로 다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앙인학교 강의 안내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성북동 프라도집에서 신앙재교육차원으로 구요비 신부님, 박광용, 홍승수, 형제님들이 봉사하여 주십니다.

* 9월 12일 : 18세기 조선 사회에서 유교와 가톨릭의 만남

* 9월 20일 : 성지순례 (양근성지와 마재성지) - 신 유교난 순교자들의 영성

* 9월 26일 : 초기 천주교 교우 공동체와 주문모 신부님의 영성

* 10월 10일 : 교우촌 공동체와 김대건 ; 최양업 신부님의 영성

평화TV방송 방송스케줄

* 신앙교리 제 1 강의녹화방송 - 9/24(목)아침 9 시

9/25(금)저녁 9 시 9/27(일)저녁 8 시

* 신앙교리 제 2 강의녹화방송 - 10/01(목)아침 9 시

10/02(금)저녁 9 시 10/04(일)저녁 8 시

* 평화방송TV에서 홍 승수 라파엘형제의 과학과 종교에 대한 녹화를 10월21일, 10월28일 15시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 10월25일 고구마 및 무우 수확 감사축제

지난 5월9일 고구마 줄기를 심어 현재 고구마가 잘 자라고 있으며, 9월5일 옥수수를 수확하고 그 자리에 무우를 심은 후 10월25일(일) 오전8시 구로역 애경(백)옆에서 출발하여 두미리 밭 터에서 고구마와 무우를 수확하여 감사의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6월28(일) 방 카타리타님의 제2주기 미사가 오후16시 종로성당 광탄묘원에서 20명이 참석하여 위령미사, 연도 및 추도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방카타리나 유품을 정리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7월5일 수원 빈첸시오회관에서 수원교구 빈첸시오회원 약 80명을 위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피정에 참제자 회원이 파견되어 피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신두식 비달리아노, 이상운 도미니코, 최창주 분도, 정태진 안드레아 형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8월15(토)-16(일) 1박2일 일정으로 포항성모자애원 마리아의 집 캠프가 대구가톨릭대학교 청통수련원에서 35명이 참여하여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오전엔 연풍성지를순례하였습니다.

* 9월5일 모곡/두미리 옥수수축제에 38분이 참석하여 약 1,000여개의 옥수수를 수확하여 즉석에서 옥수수를 찢어서 맛있게 시식하셨고, 남은 옥수수는 노력 봉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드리고, 주님께 감사의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 9월12일 오 영진 주교님 미사 및 환영회는 주교님의 사정에 의해 불란서로 귀국하셔서 취소되었습니다.